

韓國 學校建築을 阻害하는 洋式建築의 그 要因分析과 方向에 關한 研究

〈 韓國學校建築의 史的 整理를 통한 近代初期를 起點으로 하여〉

劉 香 山

誠信女師大 副教授

目 次

1. 序 論

2. 學校建築의 歷史的 背景

1. 西歐 學校建築
2. 近世以前의 韓國 學校建築
3. 近世以後의 韓國 學校建築

- ① 成均館
- ② 梨花學堂

1. 序 論

韓國 學校建築의 哲學的 背景을 歷史的으로 살피려면 첫째 韓國 教育思想이 있는 學校建築 樣式에서 살펴야하고 둘째 韓國 固有의 自然環境의 背景과 社會的 環境의 因하여 成長 發展되어온 學校建築 樣式에서 살펴야한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韓國 學校建築을 歷史的으로 볼때 처음부터 學校建築의 特殊性에서 出發한 學校建築이 아니고 一般建築에서 出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韓國 教育思想이 있는 學校建築 樣式을 찾아볼수가 없다. 더욱이 韓國의 近代社會가 他國의 強制的인 開港을 通하여 形成되는 동안 商業為主, 宣敎事業為主, 侵略爲主의 歐美列強의 近代 洋式建築이 그나라 蔑대로 韓國 땅에 上陸하였고 特히 日帝 36年을 通한 植民地 教育속에서 우리 固有한 教育思想, 自然環境 및 社會環境 背景에 맞춘 一般建築 技術을 期待할 수 없었던 事實을 想起할때, 여기서 學校建築의 正道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韓國 땅에 세워진 그러한 建築속에서 學校建築을 史的으로 分析한다는 것은 부끄럽도록 價值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이 歷史的 事實 自体로써 끝나는것이 아니고 아직도 그러한 一般建築의 立場에서 學校建物을 建築하고 있는것을 아무 꺼리낌없이 받아들이고 있으면

서도 이에서 오는 教育的 副作用과 韓國의 自然環境 및 社會環境에 커다란 阻害要因이 되고 있는것을 實感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學校建築은 低開發分野로 머물고 있고 學校建築이 教育上 學生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影響을 끼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

따라서 韓國 學校建築의 哲學的 背景을 歷史的으로 分析한다는 것은 이러한 副作用과 阻害要因을 안고있는 一般建築化한 學校建築을 對象으로하며, 단 이는 日本이 韓國의 開國을 斷行한 1876年을 起點으로 하여 1900年 사이를 分析하기로 한다.

만일 그속에서 그의 哲學的 背景이 發見되지 못하였을 境遇에는 이들을 韓國 教育思想의 副作用 要因으로 또는 韓國 學校建築의 發展을 阻害하는 要因으로 看做하고 그다음에 우리 固有의 哲學的 背景을 具體的으로 提示함으로써 그에 따라 發見되는 哲學的 背景에 맞는 韓國 學校建築을 設計하는 技術陣에게 이것을 基礎資料로 提供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이들의 分析에 앞서 밝혀둘 것은 筆者가 教育行政 講義를 하면서 特히 教育施設行政에 關心을 가진바 敢히 技術問題는 다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教育的 立場에서 이를 다루어 보려는 것이다.

2. 學校建築의 歷史의 背景

1. 西歐 學校建築

1) 希臘, 羅馬의 學校建築

McCormick와 Cassidy 에 따르면 B. C500~B. C. 200年 사이에 希臘, 羅馬에는 “教師가 學生에게서 부터 받은 授業料를 가지고 教室을 準備하였고 그렇지 못한 教師는 寺院이나 公共建物の 처마 밑에서 공부를 가르쳤다”^①고 한다.

그때에 아테네에는 先生만이 있었고 學校建物は 存在하지 않았음을 “Butts”^②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래서 “先生이 있는 곳에는 學校가 되는 것이고 父母들은 이러한 先生을 選擧하여 그들의 子女를 教育시켰다”^③고 한다. 이때에 教育內容은 대단히 單純하였고 오직 幾科目의 先生만이 存在하였다.

“約 B. C. 100年 後에도 希臘, 羅馬는 教育施設이 크게 發展하지 못했었다”^④

그래서 教室은 “현관 밑, 창고 또는 오두막집, 담 밑에 움푹파인 곳”^⑤이었다. 이렇듯 希臘, 羅馬에서는 學校建物が 存在하지 않았었다.

동시에 이때의 “建築은 이태리나 코린스에 基礎한 도릭寺院(Doric Temples)의 初期形態에서 建築設計를 하였다”^⑥ 그리고 “부드러운 돌과 쉽게 모양이 나는 大理石을 使用했고 일하기 便利한 建物보다 高度의 優越性을 主張했다”^⑦

이와같은 “建築의 發展上을 學校建物は 利用할 줄 몰랐다.”^⑧

2) 美國의 學校建築

17世紀

17世紀의 學校建物は “매력적이거나 安全하지 않았고 學生들의 身體的인 精神的인 安息處도 못되었었다. 더욱이 地方에 있는 學校建物は 황폐하고 거칠었으며 그곳에는 植物이나 動物이 살기에도 황량한 곳이었다. 그래서 學校地로서는 상당히 추하고 불쾌한 곳으로 생각되는 場所였다”^⑨ 이때에 “美國 學校建物は 學生을 위한 의자, 책상, 先生을 위한 교단만을 가진 한개의 방이었다”^⑩ “이러한 建物は 때때로 시끄럽고, 通風이 나쁘고 단조롭고, 채찍질하는 막대기만이 있었다”^⑪

동시에 17世紀의 學校建물에 比하여 建築은 實際的이고 풍부한 資源을 많이 利用했던 것 같다. 이에 反하여 “學校建築設計에는 建築學的인 忠告를 必要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유일한 큰방 하나와 방구석에 벽난로와 유리창이 있을 뿐이었다”^⑫

18世紀

18世紀 美國 “學校建物は 古代에 있었던 學生과 先生이 함께 있는 單純한 움막집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學校建物이라는 그러한 概念을 초월해서 약간 發展을 하였다. 그래서 學校는 先生과 學生을 위한 의자·책상·교단·및 校具를 갖추었다.”^⑬

이때에 美國 “建築이라는 것은 英國의 流行에 無條件 따랐고 訓練이 부족한 建築家들과 經驗이 부족한 建築施工者들로 古典의 形態의 作業을 하였고, 돌대신 나무나 벽돌등을 使用하여 집을 짓는 것에만 關心을 가졌었다”^⑭ 특히 “美國 建築家들의 關心은 學校建物보다 一般建物에 더 關心이 컸었다”^⑮

이리하여 美國 學校建物は 아주 單純했고, 비록 “이時代에는 이러한 建물이 利用價值가 있었으나 建築面에서는 실패를 하였다.”^⑯

19世紀

“1844年 뉴우욕州에 많은 學校는 무방비 狀態이었고, 그建物は 보기에 흉하고 不安全하고 다혈어 빠졌고, 教室門은 다 떨어져 달랑달랑 매달린 채였고, 아무런 장식도 없으며, 유리창도 없으며, 거치장스러운 의자와 한심스러운 천장, 여기저기 썩어 무너진 마루등으로 된 建物이었다”^⑰ 이러한 學校建物は “전체의 糞”^⑱였고 이들은 動物에게도 適당치 않은 場所였다고 한다.

그래도 美國은 1820年에서 1850年 사이에 公立學校의 必要性을 느껴 Horace mann, Henry Barnard등 여러사람들의 努力을 통하여 成果를 거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都市에는 간단한 한개 또는 두개의 방을 가진 學校建물이 있었고, 큰 學校는 안식처와 같은 環境을 꾸며 왔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教育的인 實驗場所가 아니었다”^⑲

그러니까 위에서 提示한 대로 學校建物は 사람에게는 물론 動·植物조차도 살수 없는 場所라는 것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Roth가 指摘했듯이 “19世紀 後半期 동안에 建築에 對한 概念과 創造的인 思考는 철저히 단절되었고, 서로 正反對의 立場에 있는 兩世紀사이에서서 이들을 融合시키기에는 너무도 水準 以下の 性格으로 떨어져 버렸다”^⑳는 것이다. “이때의 建築家들은 現代와 融合할 수 있는 方法을 모르는 모호한 傳統性을 지니고 있었다”^㉑ 따라서 “學校建물이 처음부터 잘못 出發되었다는 사실에 關心을 갖기 始作했다”^㉒ 그러나 19世紀 後半期까지 學校建築設計와 建築사이 에 뚜렷한 關係를 알수 있는 資料

가 없었다.

어쨌든 學校建築은 教育의 必要性에 크게 關係 없이 약간 다른 建築形態에 適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Roth말하듯이 “一般的으로 學校建物 設計는 學校建物の 性格과 多様な 技能을 생각하지 않았다”²⁴⁾는 것이다. 그러므로 必要한 것은 教室뿐이었다.

19世紀의 學校建物は 教育施設로서 보다 建築藝術의 作品으로써 設計됐고, 이 建物は 特大型의 建물이었고, 非技能的이고 非創造的인 設計이었다” “많은 이러한 建物들은 아직까지도 큰복도, 웅장한 대합실, 어마어마한 원주기둥, 쓸데없는 난간 등을 가진 建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²⁵⁾ 이 時期에 建築學的인 強調點은 분명히 形態, 樣式에 있고 學校施設의 技能的인 面에는 關心이 없었다.

20世紀

이때에 學校는 城이요, 宮殿이었고 그들의 建築的인 樣式은 Gothic, Renaissance, 또는 Baroque Style이었다, 이들이 相互 混合된 Style이었다. 그들의 모양이나 形態가 무엇이든 그들은 技能的인 面에서 學校를 標榜할 길이 없었다. “어린이들의 活動範圍를 實際的으로나 情緒的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建物의 大型의 入口, 復道, 階段 등은 兒童教育의 面에서 잘 表現된 것이었고 藝術的 效果를 가지고 選擇된 것이라 하더라도 教育的인 것은 아니었다”²⁶⁾

이러한 學校建築의 잘못은 先入見的인 教育概念이나 이들에 基礎한 教育課程의 결여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째로 重要한 原因은 建築家나 教育者 그리고 建築行政家들 사이에 閉鎖된 共同作業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時期 동안에 學校建物は 大部分 建築學的으로 열의를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美國보다 “유럽 建築이 學校建物を 發展시키는데는 效果의이었다”²⁷⁾

“20世紀初, 몇몇 學校는 古典的인 影響을 받았다. 그러나 大部分은 建築的인 고려없이 建築되었다. 대부분의 많은 學校建物は 붉은 벽돌의 벽과 가파른 경사를 가진 지붕을 하고 있는 큰상자에 불과했고, 이 큰상자는 4~8個의 작은 방으로 나뉘어지고 一定하게 칸을 막은 작은방은 教室이라고 불렀고, 때때로 다락방을 集합장소로 使用하였다”²⁸⁾

그 當時에 “이러한 建物들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學校建물에 對한 問題에 가장 바람직한 解答을 줄 수 있는 歷史的 事實인 것이다”²⁹⁾

그러나 Roth가 指適한 바와같이 “建築家나 教育者 어느 누구에게도 學校建物を 위하여 達成되어야 할 教育的 課業에 對해서 明確한 理解를 줄 수 없다”³⁰⁾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教育者와 建築家들은 學校建物の 技能的 設計의 必要性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不幸히도 몇몇 教育委員들과 學校行政家들은 教育者와 建築家 사이에 協同研究의 必要性을 아직 認識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學校에서는 단 한장으로 된 “學校建築에 對한 情報文”을 作成하여 줄것을 學校建築 設計者에 의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마땅히 學生들의 (해당학교 건물을 사용하는) 水準에서도 求할수 있다는 것이다.

2. 近世以前의 韓國 學校建築

1) 372年代에 學校建築

이 當時의 學校建築의 哲學的 背景은 外來思想이 伝해 오던때와 때를 같이한다.

外來思想이 伝해진지는 이미 오랜 일이었으나 워낙 民族 固有思想(弘益人間)이 수천백년을 두고 우리 祖上들의 精神生活을 支配하여 왔기 때문에 이 동안에는 外來思想이 좀처럼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가 新羅統一 以後 平和時代가 오래 계속되고 또 다른나라 사람들의 生活이 向上되어 어느정도 사치가 흐르게 되자 지금까지의 건실한 風習과 씩씩한 尚武的인 氣風은 하루하루 쇠퇴되어 文弱之風이 부쩍 일게 되어 어느덧 사람들은 外來思想에 물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타난것이 儒敎思想이요, 이 思想을 中心으로 教育을 實施한 學校역시 그 建築樣式은 中國의 影響을 받은 것이다.

太學(高句麗)

高句麗의 太學은 지금부터 1604年前에 일어났으니,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才6, 小獸林王二年夏2月)에서 보면 “太學을 세우고 子弟를 가르치다”라고 하여 우리나라 처음으로 國家에서 學校를 세운 事實을 밝히었다.

廡堂(高句麗)

太學과 때를 같이하여 처음으로 集團教育을 目的으로 세웠으니, 舊唐書 高句麗傳에서 보면 “風俗이 매우 書籍을 사랑하여 勢力이 있고 없고 간에 모두들 거리마다 큰집을 지어 이를 「廡堂」이라 하였다 한다”³¹⁾

“高句麗時代의 建築은 樂浪時代에 使用하였던 漢式建築形式을 계승하였다”³²⁾

2) 651年代에 學校建築

이때는 新羅時代로 大舍二人을 두었는데, “新羅에는 伊伐浪으로부터 造位에 이르는 一七官等이 있었는데 이때에 舍知에서 奈麻에 이르는 官位者로 大舍二人을 두었고, 大舍는 国学의 官職이다”³⁴⁾

新羅建築은 高句麗와 百濟사이의 文化속에서, 中国北朝의 影響으로 發展된 高句麗 文化와 南朝의 影響을 받아서 百濟文化를 동시에 받아들여므로 해서 이들의 綜合的인 樣式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高句麗, 百濟보다 대조적으로 新羅는 그 固有의 文化 特性을 지속시켜왔다. 新羅는 外來의 樣式이나 技術을 잘 흡수하여 소화시켜 新羅의인 感覺에서 建築을 하였다.

그러나 西歐 學校建築과 같이 學校建築이 과연 이러한 新羅建築의 特性을 잘 利用했느냐 하는 것은 의문에 여지가 있다.

3) 682年代에 學校建築

新羅는 역시 682年 6월에 国学을 세웠으니 이는 “真德王 5年(2984)에 博士, 助教 및 몇몇의 大舍(教育을 맡은 官理人) 2人을 두어 教育을 하게 한 것이다”³⁵⁾

三国史記 學記에 보면 “예로부터 사람을 가르친 곳으로 家에 塾이 있었고, 黨에는 庠이 있었고 術에는 序가 있었고, 國에는 學이 있었다 하였으니 이것이 學校建物이었다. 이는 中國을 모방한 것으로, 당시 中國은 政治와 教育制度에 있어서 25戶를 한반으로하여 이를 閭또는 家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첫머리에 큰문을 세워서 이 문옆에 塾을 만들어 놓고 閭안에 사는 백성들의 자제로 하여금 朝夕으로 나와 배우게 하였고, 다음 500戶가 한테 모인 곳은 黨이라 하여 여기에는 學校를 세워 이것을 庠이라하고 塾에서 올라온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 50戶가 넘는 곳은 州 또는 術이라 하여 여기에는 學校를 세워 序라 하고 庠에서 올라온 아이들을 가르쳤고, 天子가 있는 서울 및 諸侯가 있는 都邑에는 學校를 세워 學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소위 国学으로써 여기에는 太子 王子 그리고 조정의 높은 地位에 있는 이들의 아들 및 민간에서 특히 뽑힌 子弟들을 넣어 가르쳤다”³⁶⁾

4) 930年代에 學校建築

930年 高麗時代에 “平壤과 開城에 學校를 세웠으니 平壤 西京과 開城에 六部學堂을 세웠으니 때는 太祖13年(3263)에 일이다.

이때의 高麗建築은 “佛敎의 禪宗思想의 影響으로 말미암아 客觀의 形式에 구애되지 않고 主觀의 心性을 高調하는 동기를 이루었다. 이와 아울러서 王位無常 兵亂의 頻起, 貴族의 爭鬪 및 橫暴 등으로 社會的인 不安은 소극적이며 허무적인 경향을 초래하면서 息災延命과 寂滅 爲樂을 소원하게 되어”³⁷⁾ 高麗의 建築은 명량한, 理想的인 순수성이 적어 寂照美 靜寂美가 그特徵이다.

5) 992年~1272年代에 學校建築

高麗는 睿宗 4年에 教育內容을 넓혀 麗沓, 待聘, 經德, 求仁, 服膺, 養正, 講芸의 7齋를 두어 文武 教育을 장려하기 위하여 國子監을 設置하였다.

國子監에는 敎員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었고 町·村에는 2~3個씩의 學校와 塾이 있었다. 여기에는 結婚前의 民間子弟들이 무리를 이루어 敎師로부터 經書를 배우고 익혔다.

또한 國子監과 비슷한 大學과 四門學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文武官 5品 以上의 子弟를 教育시켰고, 四門學은 7品 以上의 官吏의 子弟를 教育시켰으며 教育內容은 律學, 書學, 散學 그리고 기타는 國子監과 비슷하였다.

이와 동시에 高麗時代에 鄉校 및 東西學堂, 그리고 五部學堂, 十二徒가 세워졌다.

그러나 高麗時代의 教育은 “12徒의 教育”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私立學校로 成宗 以後 官學의 쇠퇴를 틈타서 생긴 것이다. “文宗 7年(3386)에 崔沖은 자기집 사랑방에다 조그마한 書堂을 차려놓고 이웃아이들을 모아 가르치니 이들은 원로의 학도들로 구름처럼 모였다”³⁸⁾한다.

이때 崔沖은 私財를 털어 아홉채의 學舍를 짓고 이름을 첫째칸부터 樂聖, 大中, 誠明, 敬業, 造道, 率性, 進德, 大和, 待聘이라고 하고 수없이 밀려온 學徒들을 9반으로 나누어 정성껏 가르쳤다고 한다. 이 9齋의 教育은 날로 發展하여 이를 본 朝廷의 功臣들도 그를 讚揚한 나머지 자기네들도 제 자기 學校를 세웠다고 한다.

3. 近世以後의 韓國學校建築

① 成均館

成均館은 李太祖 7年(서기 1360年)에 세워진 것으로 서울 東北쪽 모퉁이 崇敎坊에다가 이를 처음 세웠으나 定宗 2年에 불에 타 없어진 것을 太宗 7年에 다시 지었다.

당시 大提學으로 있던 卞季良이 都邑을 정하고, 지은 文廟 碑文 을 보면

“甲戌年에 太祖가 都邑을 廟學을 지을 터를 서울의 東北 모퉁이에 잡으니 山은 멈추고 물은 둘러싸고 자리는 南向이라 丁丑 3월에 工事를 始作하여 戊寅 7월에 준공하였다. 聖賢은 높은집에 從祀는 곁집에 學校는 廟뒤에 있는데 대개 집의 크고 작은것은 칸(間)으로 세면 96間이니 廟學의 일은 이것으로 갖추었다. 그리고 庚辰年에 불에 타 버리매 우리 殿下가 旧터에 새로 짓기로 하고 星山君 李稷暨와 中軍總制 朴子青으로 役事를 감독하게 하여 卅달만에 마치었다. 함은 그由來의 대강을 밝힌 것이다. 그뒤 成宗 元年(3803)에 成均生員 權自厚의 上疏에 의하여 이를 크게 重修하고 그들레를 돌로쌓고 東西洋水를 더파고 民家를 멀리하여 境內를 넓히고 尊經閣과 享官厅을 增設하였다. 이 建物들은 宣祖 25年(3925年) 倭亂때에 다시 불타버린것을 再建하였으니 현직 서울에 남아 있는것이 곧 이것이다.

成均館의 施設

1. 文廟

文廟는 成均館 한복판 높은곳에 이것을 지어 孔子의 位牌를 安置하고 이집 左右에 곁집을 벌리어 이른바 어진이들의 位牌를 하였으니 보통 大成殿이라고 불렀다.

2. 明倫堂

明倫堂은 文廟뒤에 세웠으나 北쪽 中央에 本堂이 있고, 그左右로 東西兩齋가 늘어져 있으니 여기는 學生이 講學하는 곳이요, 兩齋는 學生들이 거처하는 곳이다.

3. 尊經閣

尊經閣은 明倫堂 東쪽에 세워졌고 이것은 成宗 때에 지은 것으로 當時에는 經史 百家諸子 以外에 여러가지 書籍이 數萬卷이 있었으며 그것을 맡은 官員으로 司芸學正 한사람씩을 두어 그 貸借의 事務를 여기서 보았다.

4. 啓聖祠

啓聖祠는 明倫堂 北쪽에다 肅宗 때 지었고 이는 孔子, 安子, 增子, 孔鯉, 孟子 등을 낳아주신 그 어머니를 위한 곳이다.

5. 丕闡堂

이것은 明倫堂 西쪽에다 현종 때 지은 것으로 北쪽 尼院을 헐어서 지은 것이다.

6. 一兩齋, 關入齋

이것은 朱子가 일찌기 佛舍를 헐어 儒宮을 지으면서 하는말이 “하나로 둘을 얻다”라고 하였단다.

그래서 一兩齋가 됐고, 程子가 老子와 佛敎의 폐해를 말할때에 “물리친 뒤에 可히 道에 들어 갈지라” 한것을 취하여 關入齋라 했다고 한다.

7. 六一閣

이는 明倫堂에서 훨씬 떨어진 北쪽에 세웠으며 이는 大射禮를 行할때 쓰는 建物로 “射”가 六芸 가운데 하나라 하여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이외에 正錄厅, 書吏厅, 享官厅, 香厅, 典紀厅, 祭器厅, 直房, 庖厨, 食堂西壁庫, 門庫 東西月廊 등이 있으며 이와는 따로히 學生들의 衣食에 關한 財政을 經理하는 養賢庫를 두었으며 그 經費는 國庫補助 以外에 太宗 때에 學團이라는 것을 特히 設定하여 거기서 나는 것으로 선비를 기르는 비용에 충당하니 발이 萬錠畝, 奴婢가 300명, 그리고 京畿 全羅 등의 연안 여러섬에 있는 어장의 수입을 여기에다 넣어 그 경영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한다.

以上과 같은 成均館의 建築 또한 앞에서 말한 建築과 같이 佛敎建築에 영향을 받아서 지은 것이다.

② 梨花學堂

梨花學堂 設立背景

1884年에 두차례에 걸친 美北監理會의 宣敎師가 來韓하여 宣敎의 길을 튼후 1885年 4월에 아펜셀라 博士와 醫師 스크랜튼(W. B. Scranton)이 來韓하고 1885年 6월에 스크랜튼 부인이 또 來韓 하였다. 이때 그夫人은 貞洞에 敎會를 設立하고, 그후 그는 1886年에 梨花學堂을 設立하여 (배재학당은 1885年 아펜셀라가 設立) 그후 各學堂은 國王의 認許를 받고 이름(梨花)을 閔妃로부터 下賜받았다.

“學堂初期에는 敎科課程이니 年限이니 하는 學制가 짜이지 못했으나 學制를 施行할 만큼 정기적으로 學生의 入學이 可能한 형편은 아니었다. 學生들의 의류, 寢食, 學비가 전부 보장되는 完全 獎學制度였으나 안방에 깊숙히 들어앉아있는 舊守들을 여학생으로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다”⁴⁰⁾

이때 梨花學堂이 始作된 곳은 서울의 西部 皇華坊 貞洞에 있었다. 이곳은 서울 城內 西쪽에 치우쳐 있으니 바로 西大門에서 南大門으로 이어지는 都城의 城壁이 學校西쪽 언덕으로 펼쳐 있었다.

梨花는 이 城壁안에 자리잡고 있으며 멀리 東쪽으로는 옛 貞陵과 興天寺를 바라보는 자리이다. 스크랜튼 夫人이 이땅을 購入할 當時에는 外國公館들과 이웃하여 外國人이 머물기에 좋았으나 땅 자체는 19棟의 초가집과 황폐한 불품없는 땅이었다. 그러나 이는 그夫人이 女性近代敎育의 보금자리를 이루어 놓은 곳이다.

이 “洞里가 貞洞이라고 불리우는 由来는 貞陵洞 大貞陵洞으로 부터 비롯된다.

이는 太祖의 後娶인 神德王後 康氏가 太祖 5年 (1396年)에 돌아가시에 都城內 皇華坊 北原을 陵地로 扞하여 이름한 것이다.

이 貞陵의 位置는 現 英國大使館터이고, 陵寢의 東隅에 있던 興天寺의 位置는 英國大使館 近處이다. 따라서 卓洞은 貞陵으로부터 專稱된다. 貞陵을 太宗 9年 (1409)에 城밖 楊州 沙乙閑 기슭에 移葬後였다. 그러니까 校庭의 位置는 西大門(都城의 4大門中의 하나)과의 거리가 約 200~300m였다.^①

梨花学堂 校舍建築

梨花学堂은 韓國式 最初의 기와집 校舍를 1886年 이른봄 2월에 始作해서 11월에 完工하였다. 이때는 약간 미비한 狀態였으나 스크랜튼 博士 舍宅(培材학당과 梨花학당 사이에 位置)에서 始作한 學生들은 이 새집으로 옮겼다.

처음 韓國式 기와집 校舍는 “ㄱ”字型的 90° 좌회한 形式의 축대위에 세워진 집으로서 그때 선교사들이 表現하기를 큰 韓國式 家屋보다 대단히 큰 집이라고 하였는데 길이가 88피트, 넓이가 80피트로 韓國 間數로 보면 195.5間이니 한국식 構造로서는 굉장히 큰집이었다. 방은 7~8개로서 先生 및 學生宿舍가 있고 教室이 있었다.

1887年 當時 46名의 學生을 韓屋에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 그후 증가하여 1897년에는 韓國校舍를 지은지 12年만에 韓屋校舍를 헐고 그자리에다 붉은 벽돌의 二層 建物을 Pain堂長이 主管하고 미쓰 Friar의 協力으로 짓기 始作했다.

1899年 5月 一部가 完工되어 入住하고 1899年 12월에 준공을 보아 宣教師 舍宅을 붙여서 建築하여 1900년에 완공하였다. 이것이 4年만에 지어졌을때의 건물은 전면쪽 바른쪽에 강당, 왼쪽에 선교사 宿舍, 건물후면에 기숙사,방이 14개, 教室, 事務室, 會計室, 부엌, 식당, 목욕탕等 최신식 설비로 안과 밖이 가추어져 있었다. 여기는 120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4명의 선교사, 선생을 숙소시킬수 있었다. 물론 이본관 건축을 위해 north western philadelphia, New york, 신시나티, new expland 등 여 선교부 다섯 支部의 후원을 얻어서 완공된 것이다.

이 집이 완성될때 스크랜튼 堂長은 “이집은 教師의 편안한 宿舍가 되고 배우러온 女子들을 위한 校舍가 될것이다.

불품없는 땅에 있던 움막집은 헐어서 쓸만한 것은 새집짓는데 使用하고 불모의 모래밭은 파란잔디로 옷을 입히고 돌이많은 좁은 길과, 불편한 도랑은 꽃나무와 나무로 덮혀져 있었다”^②라고 하였다.

参考文献

- ① Patrick McCormick and Francis Cassidy. History of Education, N. Y.; Catholic Education Press. 1953. P. 105.
- ② R. Freeman Butts. A Cultural History of Education N. Y.; McGraw-Hill. 1947. P. 55
- ③ Ibid. P. 55.
- ④ 音樂. 基礎料理(Reading, Writing, Arithmetic.) William A. Smith. Ancient Education. N. Y.; Philosophical Library. 1955. P. 133.
- ⑤ Ellwood P. Cubberley. The History of Education N. Y.; Houghton mifflin Co., 1948. P. 280
- ⑥ Ibid. P. 66.
- ⑦ Russell Sturgis. History of Architecture. Doubleday 1916, P. 129.
- ⑧ Ibid. P. 129.
- ⑨ Basil Castaldi. Creative Planning of Educational Facilities. Chicago; Rand McNally & Co., 1969. P. 4
- ⑩ Edgar W. Knight. Education in the U. S., 3rd. ed., Boston; Ginn and Co., 1951. P. 413.
- ⑪ Ibid. P. 413
- ⑫ Basil Castaldi. op. cit., P. 7
- ⑬ Ibid. P. 8
- ⑭ Ibid. P. 7
- ⑮ Ibid. P. 8
- ⑯ Ibid.
- ⑰ Ibid.
- ⑱ Edgan W. Knight. P. 416
- ⑲ Ibid.
- ⑳ Basil Castaldi, P. 8
- ㉑ Alfred Roth. The New School, N. Y.; Frederick Praeger, 1957, P. 24.
- ㉒ Ibid,
- ㉓ Ibid,
- ㉔ Ibid.
- ㉕ Alfred Roth. op. cit., P. 11
- ㉖ Basil Castaldi, op. cit., p. 11
- ㉗ Ibid.
- ㉘ Ibid. P. R.
- ㉙ Alfred Roth. P. 26
- ㉚ Basil Castaldi P. 12
- ㉛ Alfred Roth. P. 26
- ㉜ 朴相萬, 韓國教育史, 서울: 大韓教育聯合會. 4291. 85面
- ㉝ 尹張燮, 韓國建築史. 서울: 東明社. 1974. 53面
- ㉞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 ㉟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第8, 神文王 2年.
- ㊱ 上揭書
- ㊲ 高麗史 卷74 學校考
- ㊳ 杉山信三: 高麗末期朝鮮初の木造建築に関する研究 第3編, 第3節 참조
- ㊴ 朴相萬, 前揭書 120面
- ㊵ 鄭忠良, 梨花 80年史, 서울: 이대출판부, 1967. 11面
- ㊶ 上揭書 56面
- ㊷ 18th Annual Report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for the year 1887, P. 150